

# CEO, 끝이 좋아야 한다(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중국 남북조시대 양(梁)나라에 장승요(張僧繇)라는 화가가 있었다. 현재의 남경인 금릉 안락사(安樂寺)의 정중한 부탁으로 그는 절의 벽에다 용을 그려 주게 되었다. 이윽고 두마리중 한마리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러자 그 용은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해 버렸다. 이것이 화룡점정(畫龍點睛)이다. 즉 가장 요긴한 곳과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고사다. 할리우드 서부영화인 1960년대 '세인'이라는 영화가 있다. 당시 인기배우 아란 랫드가 주인공 카우보이 역을 멋지게 해냈다. 재빠른 솜씨의 총놀림으로 맞대결에서 최후의 악당 두목까지 쓰러뜨렸다. 그런 후 그는 황혼을 향해 미련없이 말고삐를 거머쥐고 표표히 떠나는 라스트 신은 관객을 몽클하게 감동시켰다. 요컨대 CEO도 떠날 때를 알고 또 끝맺음이 좋아야 한다.

## 떠날 때를 알아야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같은 CEO'꿈'을 소개한 바가 있다. 쌍기역(ㄲ)자로 된 일곱 글자다. 꿈, 꾀, 꾀, 꾀, 꾀, 꾀, 꾀. 끝이 그것이다.

'꿈'이 있어야 한다. 즉 비전의 전도사여야 한다. '꾼'이다. 일꾼, 장사꾼이어야 한다. 입만 앞서는 '말꾼'이 아니다. '꾀'가 넘쳐야 한다. 냉철한 머리의 전략가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working harder)보다 슬기롭게 일하는 것(working smarter)이 중요하다. '깡'이 있어야 한다. 갈대처럼 눈치나 봐서는 안된다. '끼'가 넘쳐야 한다. 물론 매미처럼 놀기만 잘하는 '똥따라 끼'와는 혼동해서 안된다.

'끈'이 있어야 한다. 오너의 끈보다 고객과의 끈, 종업원과의 끈, 사회와의 유대가 중요하다. '꼴'이 좋아야 한다. 오너 앞에서 출랑대는 방자나 느낌보 곰 같아서도 안된다. 덧붙여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한국속담이 있다. 셰익스피어도 "명배우는 퇴장할 때를 안

다"고 했다. CEO는 떠날 때를 대비하여 후계자가 아닌 후임자를 발굴하는데 공정해야 한다. 후임자 문제에 있어 떠나는 CEO가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훌륭한 CEO의 출현은 육성되고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리더는 발굴되어 스스로 성장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떠나는 CEO는 공정해질 수 있다. 떠날 때는 지저분하지 않게,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한 말씀하였다.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정사를 논하지 말라." 고문이니 명예회장이니 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앉아서 책임지지 않는 언행을 삼가하라는 뜻이다.

## 떠나면 미련없어야

어느 자리든 끝맺음이 중요하다. 찍하면 국민의 피와 땀인 공적자금을 집어먹었으면서도 뽀뽀하게 호화판 생활을 즐기는 상당수 한국의 대기업CEO들, 감옥을 들락거리는 국가 최고경영자들을 보고 있자면 할 말이 없다.

'아름다운 은퇴'로 CEO의 끝맺음을 보여주었던 미래산업의 정문술 전(前)사장의 사례는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 잘 나가는 알짜기업을 평소 '투명경영'을 강조해오다가 전문경영인에게 baton을 넘겼다.

"제가 한 은퇴결단을 '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수렴청정'의 유혹도 받았지만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아야 지휘봉을 놓는 창업주들이 많습니다. 미련을 못버리는 것이지요. 회사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업활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지만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자선문화를 개발하는데 매일 매일을 바쁘게 보낼 예정입니다."